

제19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3. 11. 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11월 1일 15:00 ~ 15:36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김 소 영 부위원장

권 대 영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유 재 훈 위 원

유 상 대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5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3년도 제18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3년도 제19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 2023년도 제18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3년도 제19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312호 『(주)하나은행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펀드신속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권유를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한 주선인을 제재하는 내용

- (위원) 소위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리즈 펀드를 발행한 것임. 종래에는 은행이 독자적으로 사모 형태로 ELS를 담는

ELT 정도를 발행하는 것이 최근까지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금융투자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TRS 형태로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리즈 펀드를 발행한 것을 발견했음. 그런데 본건에서 은행에 도움을 준 금융투자회사는 법상으로 발행인이나 주선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모자 성격으로 보임에도 별도의 조치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그래서 매우 진화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 같음. 이것이 법에 규제가 없어서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검토해달라는 주문을 했었던 것임.

○ (위원) 필요한 제도개선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13호 『바로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바로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관 과태료를 처분하려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3호 안건과 관련하여 (주)바로 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해 금융거래자의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집합투자규약은 사적 계약이라는 측면, 환매 대응으로 인한 일시적 위반인 점, 사모운용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관 과태료 부과금액을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4호 『피데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피데스자산운용(주)의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및 확약서 징구를 처분하려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4호 안건과 관련하여 (주)피데스 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증선위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해 집합투자규약은 사적 계약이라는 측면, 펀드 설정 초기 위반기간이 짧은 점과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위반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5호 『(주)무궁화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무궁화신탁(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지배구조법상의 과태료를 처분하려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5호 안건과 관련하여 (주)무궁화
신탁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임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회장 오창석의
경우, 금융회사나 거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해당 임원이 대주주이거나 동종 업종 또는 다수
영리회사에 겸직하는 등 이해상충 및 배임까지 우려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판단함이 타당함.
이에 따라 회장 오창석에 대하여 개인 과태료 부과를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6호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월별·분기별 업무보고서(“22.4월~11월)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건으로 인한 처브라이프생명보험(과태료 120백만원) 임원(건책)
및 직원(주의적 경고)을 제재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7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에 대한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

- (위원) 이것은 굉장히 걱정하게 시장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함.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표준감사시간을 정한다든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축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임. 시장에 맡기는 방식을 조금 더 고려를 하고, 문제가 났을 때 과감하게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
- (위원) 그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것이고 아직은 한 사이클이 안 돌아온 이상 기업의 부담이라든가 회계법인의 걱정된 회계감사의 진행 등을 다 고려하되, 한 사이클이 돈 다음에 제도의 적정성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내용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금감원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같이 잘 챙겨보겠음.

○ (위원) 앞으로 제도 운영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8호 『거래정보저장소(TR)의 정보제공에 관한 한국거래소의 요청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거래정보저장소(TR)가 (주)한국거래소에 CFD 관련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

○ (위원) 사실은 이 CFD 관련 정보가 금감원에서 받고 있는 것이었음. 그런데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은 금감원에서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한국거래소에서 주면 정말 이것이 초기단계부터 잡아질 것인지임. 어떤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겼기에 이것이 안 잡혔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점검을 하고, 정보도 보니까 이번에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에 요구한 정보가 조금 더 자세함. 실제로 CFD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정보인데, 똑같이 금감원에도 그 정보가 가야 되고 금감원도 동일하게 같이 역할을 해 주면 이런 부정거래가 발생했을 때 빨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제도적으로 프로세스를 좀 점검하고 고쳐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위원) 사실 이 제도가 추진된 것은 다양한 제도개선책 하에 같이 나온 것이고, CFD 관련된 문제의식 있을 때만해도 사후적으로 돌아보니 한국거래소나 금감원, 금융위, 더 길게 보면 검찰까지 해서 정보 공유가 다소 미흡했었던 부분이 있다는 전제 하에 나온 것임. 저희가 지금은 사실 더 긴밀하게 협의하는 협의체라든가 운영방식을 구성하고 있는데, 다층적으로 낱줄과 씨줄을 다양하게 해서, 시장감시위원회의 특징적 분석기법이 있는데 수리적·통계적 기법을 할 때 어떤 인덱싱(indexing)이 가능한 거래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첩보라든가 내지는 다른 방식 분석이 있으니 그것을 다층적으로 보겠다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시장감시위원회에 가는 것들이 증권회사나 어디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고보다 감시망을 조금 더 유기적이고 고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그런 문제의식 하에 저희도 지금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9호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0호 『(경기)폐퍼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폐퍼저축은행의 대주주등(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1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은행권 전반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및 예상손실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22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이 건 관련해서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혹여 처분이 가벼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건별로 규정상 할 수 있는 것이 3,000만 원 한도이고 3건에 대해서 모두 3,000만 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최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임. 더하여 행위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직접 한 사람은 이미 면직이 되어서 행위조치를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처분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관리책임자들에 대해서도 행위자 양정기준보다 더 높은 은행 내의 제재가 이루어진 점 등을 반영한 결과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제19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36분 폐회)